

고창군, 스포츠 방문객 6만명 시대 연다

공격적 스포츠마케팅 박차를 전국대회 13개·전훈 30팀 유치 전담팀 신설 각종 스포츠 행사

고창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격적인 스포츠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13개의 전국 체육대회를 유치해 1만7500여명의 선수단을 맞이할 예정이다.

먼저 다음달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1000명)를 시작으로, 3월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 (1500명), '전국 중고등부 배드민턴 대회' (1500명)가 차례로 진행된다.

또 7월에는 '장관기 전국 학생 탁구대회' (1600명), '전국 대학 동아리 태권도 대회' (11월, 1700명) 등 굵직한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에 따르면 대회 기간 등을 고려해 고창을 방문하는 연 인원은 5만6900여명으로 군 전체인구와 맞먹는 수준이며, 이들이 지역에 머물며 숙소와 음식점 등에서 지출하는 금액은 최소 21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고창군은 전국대회 개최뿐만 아니라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달부터 지난해 대통령배 전국고교 야구대회 준우승팀인 '라온고', 명문 야구부 '휘문고' 등 4개 고교팀이 고창스포츠타운에서 동계훈련을 실시한다.

또 대한축구협회 지도자 강습회 등 국내 최고의

팀들이 고창에서 연중 전지훈련을 갖는다.

고창군은 인구감소와 지역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민선7기 출범과 동시에 '스포츠마케팅' 전담팀을 신설해 전국대회 개최와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의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제1회 고창군수배 전국 유소년야구대회', '제48회 전국 대학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등 스포츠행사를 통해 연간 2만1800여명이 고창을 찾았다.

양치영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육행사를 열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 종사자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주 기자 khj@kwangju.co.kr】



지난해 남원시 농업기술센터가 조직해 운영했던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전문가들과 실습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회원 모집

4개 품목 지식·정보 공유 모임

남원시가 지역 청년농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조직화에 적극 나선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청년농업인 단체 활성화를 위한 품목네트워크 신규회원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품목별 모임을 통해 전문가 이론교육 및 현장 컨설팅, 선진지 견학 등의 농업전문지식 습득과 정보 공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품목 즉 모집분야는 지난해부터 조직돼 운영해 왔던 '한우'와 '농업비즈니스'에 더해 '정보화', '친환경' 등 총 4개 품목이다.

모집 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농업인이다.

남원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 품목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남원시 청년농업인들이 교류를 확대하고 전문 농업지식이 더욱 넓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백성 기자 bs8787@】

순창군 을 7억8500만원 들여 202동 슬레이트 처리 지원

2013년부터 2107동 완료

순창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순창군은 군민 호흡기 질환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투입되는 사업비는 총 7억8500만원이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107동의 슬레이트 처리 작업을 완료했다.

군은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관내 건축물 1만 5440동을 조사했고, 처리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700여동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도 완료했다.

올해 사업 물량은 주택 및 비주택 등 전체 202동 (지붕개량 23동 포함)이다.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1동당 최대 지원금은 주택의 경우 지난해 344만원에서 352만원으로 8만원 인상됐다. 비주택은 172만원에서 540만원으로 368만원 증가했다.

지붕개량 사업량은 23동이다. 사업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순창군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슬레이트지붕 주택. (순창군 제공)

지역 소외계층을 우선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최대 100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잔여 물량은 일반 신청자에게 배정되며, 최대 439만6000원이 지원된다.

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지붕개량 사업 모두 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사업은 건축물 주소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월28일까지다.

박영래 순창군 환경수도과장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군민의 주거 환경개선과 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석 기자 jyg@kwangju.co.kr】

익산 쌀 2만4천t 을 기업·학교 공급 확정

지난해보다 30억 늘어 450억 매출

익산시가 올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2만4000t을 기업 등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이 확정된 곳은 CJ, 하림, 분아이에프 등 기업과 수도권 학교(급식용) 등이다.

이에 따라 익산지역 쌀 공급액은 2019년 315억 원에서 21년에는 420억 원, 올해는 450억 원으로 늘어나 최근 6년간 200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CJ에 햇반용 유기농 원료곡을 공급하는 지자체 중 익산 친환경 쌀은 2019년부터 150여억을 공급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 종합식품기업으로 발돋움하는 하림의 즉석 밥 원료곡을 전량 공급하고 대한민국 최대 즉 식품업체인 분아이에프(분죽·분도시락)에 '탐마루 쌀' (사진)을 공급하는 등 판로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친환경 쌀을 연간 300여 t 공급한데 이어 올해는 서울시 은평구, 성북구 학교급식에도 공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익산지역 쌀이 주목을 받는 것은 벼 재배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생산단지를 관리한 덕분이다.

품종 지정을 통해 품종 혼입을 최소화하고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포장(품질)심사단을 운영하는 등 최상의 고품질 원료곡을 생산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7배에 달하는 3천 100ha 규모의 기업 맞춤형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 1~2월 단지 조성 신청·접수를 받는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즉석 밥 시장의 원료곡을 선정하고 대기업과 지속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 학교급식도 지속해서 공략, 농가가 쌀 판로 걱정 없이 재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군산 짬뽕특화거리 전봇대 사라진다

8억6300만원 들여 500m 지중화

군산 장미동 짬뽕특화거리에 전봇대가 사라진다.

군산시에 따르면 군산 짬뽕특화거리가 한국전력공사의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구간은 군산시 장미동 짬뽕특화거리 일대 500m 구간으로 오는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총사업비 8억6300여만원이 투입된다.

해당 구간은 군산 구도심의 상가 밀집지역으로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해 전선주와 통신주를 제거하게 된다. 전선을 지하에 매설하게 되면 보행자의 통행불편 해소는 물론 교통여건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 도시미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중화사업에 선정에 힘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은 "이번 지중화 사업으로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안전에 기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군산시 장미동 짬뽕특화거리.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